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을 방문한 PENCE 부통령에게 이민자 가족에 대한 학대를 규탄하는
공개서한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을 방문한 Mike Pence 부통령에게 국경의 이민자 가족에 대한 학대를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ence 부통령님께,

세계의 자유와 기회의 등불인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은 자랑스럽게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며, 부통령님의 할아버지인 **Richard Michael Cawley** 를 포함하여 이 나라에 도착하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에게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개방성과 관용에 대한 약속은 이 행정부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은 정책은 도덕적인 격분을 일으키며, 이 주와 이 나라를 건설한 가치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정책은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뉴욕의 주지사로서뿐만 아니라, 부통령님처럼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 서한을 씁니다. 국경에서 아이들을 빼앗기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비통함으로 이 정책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진 아이들의 끔찍한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조치가 이 아이들에게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와 상식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가는 일의 발달적인 효과를 지적합니다. 그러한 충격적인 경험은 회복불가능 육체적, 심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감사관 대행에게 우리 주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전략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국경에 있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공격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촉구하는 바와 같이, 이미 행정부의 반이민 전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뉴욕에 머무시는 동안,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 안의 명판에 있는 **Emma Lazarus** 의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숨쉬기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을 다오,
바글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불쌍한 잉여 인간들.
집없고 폭풍에 내몰린 이들을 보내다오,
나는 황금문 옆에서 나의 등을 드노라!*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